

EPR 제도 시행 1년, 플라스틱 및 재활용 설문조사 실시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조사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1년을 맞이하여

- 플라스틱 및 재활용에 관한 인식도 조사
- EPR제도와 협회의 업무에 대한 평가
- 설문결과 EPR제도에 대해 87%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회장 李國老)는 협회 회원사, 지자체 재활용 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의 이미지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협회의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04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궐립을 통하여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약 1,000명, 협회 공제회원 및 재활용회원사 약 300개사, 지자체 재활용담당 공무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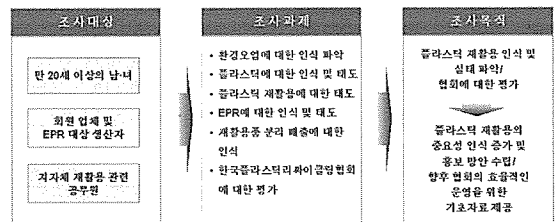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84.1%)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친근하고 유용하다는 평가와 함께 용기 및 포장재로서의 사용이 가장 적당하다(84.9%)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한편 플라스틱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97%) 나타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의 분리수거 실천도(88.2%) 또한 높게 나타났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서는 의무생산자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87%)하고 있으며,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원업체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협회에 대한 희망사항으로는 재활용제품의 홍보와 같은 홍보활동이 많이 언급되었다.

플라스틱 및 재활용 설문조사결과

▣ 조사목적

본 조사는 일반 국민과 폐기물 재활용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및 재활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이미지 향상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회원사 및 EPR 대상 비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협회의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신규회원 확보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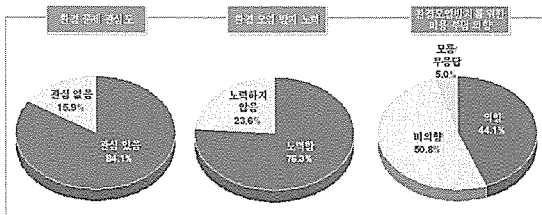
II 조사개요

구분	일반인	기업체	공무원
모집단	전국(제주 제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협회 공제 및 재광용 회공사 및 EPR 대상 비회원사	폐기물 재활용 관련 담당 공무원
표본 크기	1,008명 (유효표본)	301개사(유효표본)	103명(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3단 층화 무작위 추출법	유의할당추출	리스트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 조사	전화 조사	
조사 기간	2004년 1월 5일 ~ 1월 19일까지 (15일간)	1월 13일 ~ 14일 (2일간)	

II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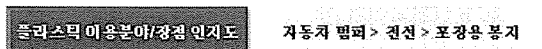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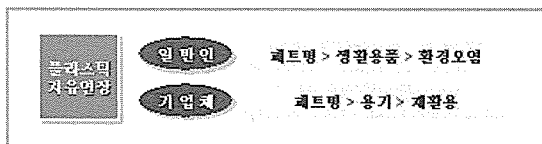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84.1%)와 오염 방지 노력(76.3%)은 높은 수준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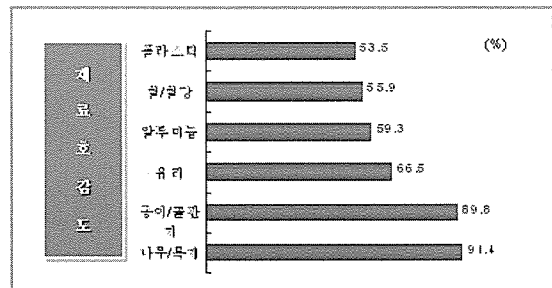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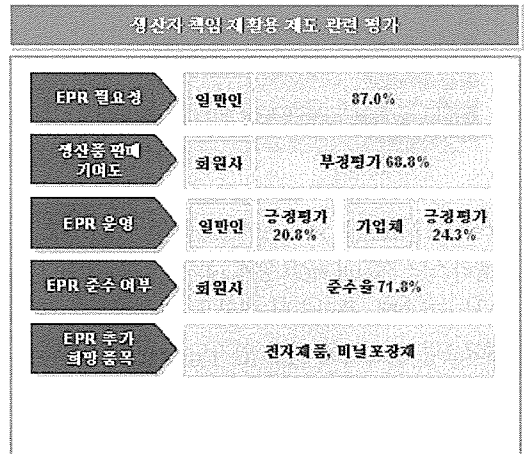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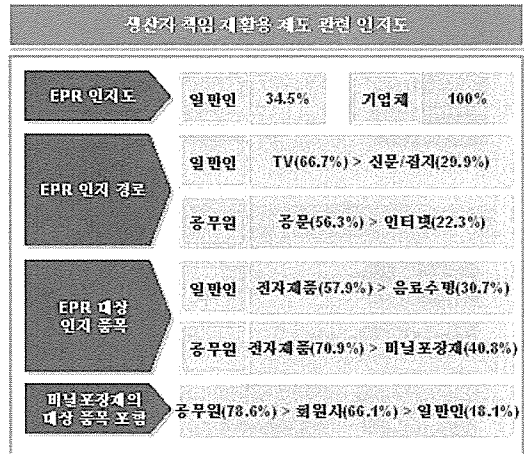
2.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플라스틱에 대해 '페트병'을 가장 먼저 연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이용분야로는 '자동차 범퍼' '전선' '포장용 봉지' 순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플라스틱 속성별 평가에서는 친근하고 유용하지만 환경 친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용기 포장재로서 플라스틱의 사용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84.9%)한 가운데, 부적당하다는 의견 제시자의 경우 '종이'를 대체 용기 포장재로 가장 많이 언급함



플라스틱 재활용 필요성	일반인 96.9%	기업체 98.0%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용도 인지도	일반인 24.6%	
유화 인지도	일반인 25.9%	
고형 연료화 인지도	일반인 18.8%	
유화/고형 연료화 시설단지 인지도	공무원 40.8% > 기업체 40.8% > 일반인 40.8%	
유화/고형 연료화 환경오염 방지 효과	일반인 도움된다 77.6%	
농업용 폐비닐 분리배출 제도	일반인 61.9%	

플라스틱 재활용 설화 평가	일반인 부정 58.2%	기업체 부정 67.8%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실천도	일반인 88.2%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견해 (동의를)	분리수거 후 재활용 92.0%	
	초각 후 전기 생산 71.4%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입 경험 25.6%	
	품질평가(긍정율) 58.8%	
	향후 이용 의향 81.5%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선점	완전한 분리수거(39.0%) > 적극적인 홍보(14.3%)	

3.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플라스틱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용도 및 유화/고형 연료화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인들의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실천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실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는 100%인 반면, 일반인들의 인지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EPR제도에 대한 국민 홍보의 필

EPR 인지도	일반인 34.5%	기업체 100%
EPR 인지 경로	일반인 TV(66.7%) > 신문/잡지(29.9%)	
	공무원 공문(56.3%) > 인터넷(22.3%)	
EPR 대상 인지 품목	일반인 전자제품(57.0%) > 음료수병(30.7%)	
	공무원 전자제품(70.9%) > 마닐포장재(40.8%)	
마닐포장재의 대상 품목 포함	공무원(78.6%) > 회원사(66.1%) > 일반인(18.1%)	

EPR 필요성	일반인 87.0%	
생산품 판매 기여도	회원사 부정평가 68.3%	
EPR 운영	일반인 긍정평가 20.8%	기업체 긍정평가 24.3%
EPR 준수 여부	회원사 준수율 71.8%	
EPR 추가 확장 품목	전자제품, 마닐포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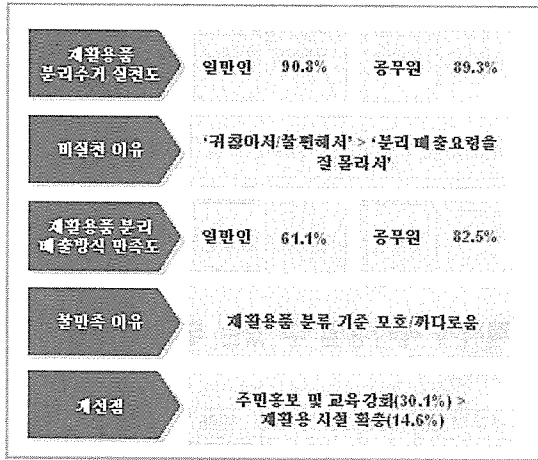
요성이 절실함

- EPR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87.0%)의 회원사들은 공감하고 있으나, EPR 제도가 생산품 판매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회원사의 EPR제도 참여율은 71.8%로 높는데,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홍보 부족(38.3%)'과 '인지도 부족(18.5%)'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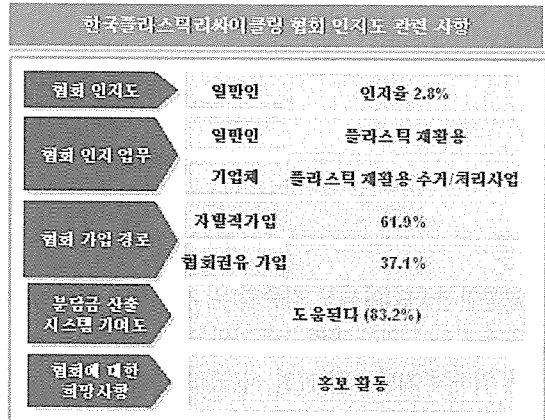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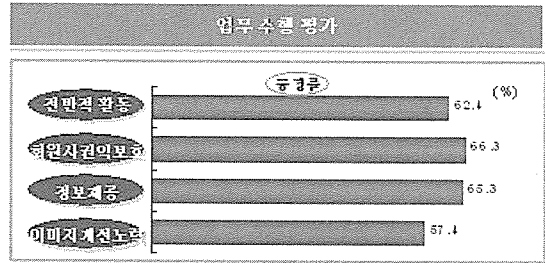
5.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실천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분리배출 품목에 대한 식별력과 수거일, 배출요령 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민홍보 및 교육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6.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인지하고 있는 협회의 업무로는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업무로 이해하고 있음
 - 회원사의 협회 업무수행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가운데, 협회에 대한 희망사항



으로 재활용 제품홍보와 같은 홍보활동이 많이 언급됨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건의 사항 검토결과 (폐기물부문)

매립지의 재사용 방안 마련 업계의견

현재 매립이 완결되지 않은 매립지를 매립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악취의 제거와 선별 등을 거친 매립지의 복원으로 새로운 매립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이렇게 재사용 되는 매립지는 퇴비화나 소각을 통하여 충분히 유기물을 감소시킨 Mono-Landfill의 형태로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Mono-Landfill의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짧아지도록 법을 개정을 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일부 기반영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고 매립장으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기반영)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고 이용불가능한 폐기물을 재매립하는 방안은 매립비용보다는 소각비용이 훨씬 비싼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낮아 비용부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매립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매립장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